

대식가 퀘네깃또

제주의 여인들은 고단한 삶을 살았다. 바다에서, 밭에서, 집에서 1인 3역을 해 나가며 집안을 이끌어 나갔다. 그런 제주 여인들의 유일한 안식처는 마을마다 모시던 신이 있는 곳이었다. 힘들 때마다 그곳을 찾으며 제주 여인들은 길흉화복을 빌었고, 정신적인 안식을 찾았다.



김녕로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108 ~ 구좌읍 김녕리 365(약 3.2km)

김녕남4길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2107 ~ 구좌읍 김녕리 산134(약 2.5km)

김승로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771 ~ 구좌읍 송당리 1172-1(약 10.7km)

해맞이해안로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497-1 ~ 성산읍 오조리 8-3(약 27.8km)

김녕로1길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953 ~ 구좌읍 김녕리 1244-2(약 1km)

김녕로15길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497-1 ~ 구좌읍 김녕리 1551-1(약 0.2km)

선유로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3336 ~ 구좌읍 김녕리 산1(약 6km)

김녕로17길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207-3 ~ 구좌읍 김녕리 1270-3(약 0.4km)

김녕로/김녕남4길/김송로 | 퀘네깃또

동북마을에서 동쪽으로 일주동로를 따라가다 **김녕로**에 들어서면 바닷가에 자리잡은 김녕(金寧)마을이 나온다. 탐라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김녕마을은 고려시대 현촌이 설치되었다고 역사 기록에 등장한다. 선사시대 유적도 발견되는 것을 보면 마을에 솟아나는 용천수와 바다를 끼고 있다는 점 덕분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김녕마을에는 두 개의 오름이 있다. 일주도로에서 이어지는 **김녕남4길**을 따라가면 묘산봉을 만나며, **김송로**를 따라가면 입산봉을 만난다. 묘산봉은 제주말로 ‘퀘살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동굴이 있는 산’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묘산봉의 동굴은 4·3사건 당시에 김녕마을 주민들의 피신처로 사용되기도 했다. 동굴 안에는 당시 피신했던 사람들이 쌓은 돌담이 남아있다고 한다. 입산봉은 조선시대에 봉수대를 설치해 왜적의 침입을 감시했던 곳이다. 이 오름의 서쪽에는 퀘네기동굴이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마을신인 퀘네깃또가 이곳에 머물면서 마을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살펴본다고 여긴다. 본풀이에 따르면 퀘네깃또는 제주 마을신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소천국과 금백조의 아들이다.



퀘네깃또당

퀘네깃또는 어릴 때 아버지 소천국의 수염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가슴을 치는 건방진 행동을 했다고 해서 소천국의 미움을 사 석함에 담겨 바다에 던져진다. 석함은 한동안 바다를 떠돌다가 용궁에 도착한다. 퀘네깃또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본 용왕은 자신의 막내딸과 혼인을 시키고 용궁에서 지내게 한다. 하지만 퀘네깃또의 먹성을 당해내지 못해 결국 퀘네깃또와 딸을 용궁에서 떠나보내고 만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강남 천자국에 도착한 퀘네깃또는 대장군으로 임명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퀘네깃또는 황제가 내리는 벼슬을 거절하고 고향인 제주로 향했다. 황제는 많은 병사를 보내 그를 호위하게 했다. 자신이 쫓아낸 아들이 수백 척의 배를 끌고 돌아오는 것을 본 소천국은 두려움에 그만 심장이 멈춰 죽고 말았고, 금백조 역시 죽음에 이른다. 퀘네깃또는 죽은 부모를 마을신으로 모시게 하고, 자신은 김녕마을의 동굴에 자리를 정해서 머물게 되었다. 그 때부터 김녕마을의 수호신으로 살게 되었다고 한다. 퀘네깃또는 먹신으로도 유명하다. 소도 한 마리 전부, 돼지도 한 마리 전부를

먹는다고 해서 제를 지낼 때 돼지털이나 피도 빠뜨리지 않고 통째로 올린다고 한다.

퀘네깃또의 출생에서 김녕마을에 좌정하기까지의 이야기는 마치 그리스신화 속의 영웅의 일생과 비슷하다. 어린 시절 버림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 낸 끝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 큰 인물이 되는 영웅의 일생은 지금도 영화 스토리에 많이 사용될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형식이다. 퀘네깃또의 신화에서도 이런 이야기의 원형을 찾아볼 수 있다.

해맞이해안로 | 잠수굿

해맞이해안로는 제주 동쪽 지역에 해가 뜨는 방향의 해안도로라는 의미이다. 이 길은 김녕리에서 오조리까지 해안을 따라 이어진다. 김녕리의 **해맞이해안로**에서는 성세기해변을 만날 수 있다. 김녕마을 사람들이 모시는 당 중에 성세기당이 있다. 김녕마을 바닷가에 있는 이 당은 바다에 나가 일을 하는 어선들과 해녀들의 안전과 풍요를 돌봐주는 신이라고 한다. 해수욕장 이름이 성세기해변인 것도 이 당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제주는 섬이라는 환경 때문에 바다에 기대어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바다농사가 풍년이나 흉년이나에 따라 제주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고기를 잡는 것도, 바닷속에서 해산물을 캐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바다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폭풍우를 만나 표류를 하거나 바닷속의 해류에 휩쓸려 저승의 문턱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서 해녀들은 다양한 의례를 통해 풍요를 기원하고 바다에서의 안전을 빌었다.

김녕마을에서는 해녀들이 중심이 되어 매년 잠수굿을 연다.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에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한 해 동안 무사히 바다에 드나들게 해달라는 부탁과 더불어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있도록 바다의 풍요를 기원하고 있다.



성세기해변

김녕로1길 / 김녕로15길 / 선유로 | 김녕리 용천수



청수물

김녕마을에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용천수가 많이 솟아난다. 장태물, 영등물, 게웃샘물, 성세기물, 신수물 등 마을 곳곳에 솟아나는 물에서 사람들은 목을 축이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을 얻을 수 있었다. 김녕로에서 바닷가로 빠지는 **김녕로1길**에는 맑은 물이라는 뜻의 청수물이 있다. 청굴물이라고도 부르는 이 물은 마을 사람들이 더위를 식히거나 일이 끝난 후에 찾아와 목욕을 했다고 한다. 청수물의 이름을 따서 이 동네의 이름을 청수동이라고 불렀다. 바다와 바로 마주하는 곳에 있어서 바다를 보며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또 다른 용천수로는 김녕초등학교 동쪽의 **김녕로15길**에 게웃샘물이 있다. ‘게웃’은 전복의 창자를 말하는 제주어이다. 바닷가까지 뚫려있는 게웃새(세)동굴에서 솟아나는 이 물은 마을 안에 있어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했었다고 한다. 죽어가는 사람도 이 물을 마시면 살아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이 밖에도 신선들이 놀고 갔다는 선유물은 말과 소가 주로 이용했던 물인데, 이 물이 있던 곳을 지나는 길이 **선유로**이다. 모래의 밭에서 솟아나는 물이라는 모랫밭물, 양푼 모양의 바위에서 솟아난다는 장태물 등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용천수의 재미있는 이름에는 마을의 문화가 담겨있다.

김녕로17길 | 도대불

김녕리 사람들의 신앙생활이나 유적들은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 마을신을 모시는 것, 매년 마을의 주요 행사로 굿을 여는 것을 비롯해 **김녕로17길**에 남아있는 도대불 역시 배들의 안전을 위한 등대의 역할을 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바다에서의 안전을 기원했던 사람들의 정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